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환대와 연대

A Study on Hospitality and Solidarity of BTS Music Video

강성애*

국문요약 이 글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된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방탄소년단이 전달하려는 메시지 중 '환대와 연대'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단순한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영웅이나 롤모델로 불리는 현상을 해석해 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는 개인의 고통과 서로를 향한 제스처, 그리고 공동체다.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누워 있는 사람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 들어온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 모두 환대와 연대를 느낄 수 있는 제스처들이다. 고통 속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은 이러한 제스처로 인해 공동체 속에서 치유를 받고 기쁨을 느낀다.

처음에 이들이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친구였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절대적 타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관심은 눈앞에 보이는 타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제3자에게로 향한다. 가정 폭력, 학교 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방탄소년단은 노래한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인기 있는 아이들을 넘어섰다. UN에서 두 번이나 연설을 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 인터뷰에 응하며 소신을 밝히는 이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자신들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방식인 춤과 노래, 영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이 시대에 진정한 메신저가 되었다.

핵심어 방탄소년단, 뮤직 비디오, 환대, 연대, 제스처, 메시지

*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1. 들어가며
2. 타자의 얼굴과 제스처에 나타난 환대
3. 절대적 타자를 넘어서는 연대의 시선
4. 나가며

1. 들어가며

방탄소년단^{이하 '방탄'}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면서 음악 평론가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방탄, 혹은 이들의 음악, 혹은 이들의 팬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방탄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집중하였고 그들의 언더독 서사, 메시지, 진정성, 착한 성품,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 뛰어난 실력 등에서 원인을 찾았다. 또한 연구를 끝맺으면서 방탄을 단순히 성공한 아이돌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메시지로 이 시대 청년들을 살리고 있는 시대의 영웅으로 평가했다. 이지영은 방탄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변화에 기존의 위계질서와 권력관계를 바꿀 수 있는 '혁명'의 힘이 실려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⁰¹ 이러한 연구자들의 평가는 이들의 메시지에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방탄의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뮤직비디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정윤은 방탄의 뮤직비디오를 가수와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 가사에 맞게 프레임을 구성하거나 가수의 매력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는 일반 뮤직비디오들과 다르게 본다. 방탄은 기획사의 의도나 상업적 목적에 따라 수동

01 “내가 보기에 방탄은 아이돌 그룹을 넘어 오늘날 사회 구조, 미디어, 예술 형식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이 변화에는 기존의 위계질서와 권력관계를 침식하며 사회 전체를 뒤바꾸는 혁명의 힘이까지 발견된다.”(이지영, 『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 파레시아, 2018, 7쪽)

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는 주체로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고 있기에 그들의 뮤직비디오는 텍스트처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닌다고 평가하는 것이다.⁰² 장정윤의 주장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방탄의 뮤직비디오를 텍스트로 보고 접근하여 나름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특히 한 작품을 선택해서 그 작품만의 특징을 찾아내는 연구보다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적용한 뮤직비디오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정지은은 방탄이 케이팝 시장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연작 형태로 발표하면서 명확한 세계관으로 해외 팬들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뮤직비디오가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말한다.⁰³ 이민하 역시 글로벌 음반 시장의 성과를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⁰⁴ 이들이 집중한 대상은 2015년에 발매한 앨범 〈화양연화〉부터 〈LOVE YOURSELF Answer〉까지의 앨범에 속한 뮤직비디오다. 여기에는 BUBTBS Universe, 방탄소년단 세계관'라는 로고가 붙었고 이들 뮤직비디오 속에서 방탄 멤버들을 각각 하나의 캐릭터를 맡아 7명의 젊은 남성을 연기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서울대 인문대학 미학과를 졸업한 방탄의 프로듀서인 방시혁의 영향으로 보인다. 방시혁은 2018년 KBS의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탄의 음악에서 '서사'가 가장 중요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방시혁은 또한 뮤직비디오는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하며 방탄 음악에서 뮤직비디오는 수억 원의 제작비가 투자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02 장정윤, 「뮤직비디오 이미지 분석에 의한 방탄소년단의 남성성 특징 연구」, 『인문사회21』 13(1), 인문사회 21, 2022, 1996쪽.

03 정지은,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연구』 19(3), 한국문화산업학회, 2019, 64쪽.

04 이민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13(3),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2019, 352쪽.

다.⁰⁵ 그 결과 방탄의 뮤직비디오는 데뷔 초부터 주목을 받아왔으며 특히 스토리텔링이 적용된 〈화양연화〉부터는 국내외에 큰 인기를 몰고 왔다.

방탄의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사람들을 돕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레비나스는 주체가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타인을 수용하고 환대할 때 이뤄진다고 보았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사랑하고 섬기면 그제야 진정한 주체로 세워진다. 타자의 얼굴은 나에게 자신을 도우라는 명령하는 힘으로 다가오고 그 명령을 외면할 때 불의를 저지르게 된다. 즉, 내 앞에 등장한 고통받는 타자는 나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타자는 ‘절대적 타자’이다.⁰⁶ 방탄의 〈화양연화〉 뮤직비디오에는 레비나스가 말한 절대적 타자가 고통에 처한 친한 친구로 등장한다.

레비나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타자의 얼굴인데, 지젝은 이러한 레비나스의 생각에 비판을 가한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제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타자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⁰⁷ 방탄의 〈LOVE YOURSELF Answer〉 뮤직비디오에는 지젝이 말한 ‘어딘가 있을 타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절대적 타자든, 제3자의 타자든 타자에 대해 따듯한 시선을 보내고 손을 내미는 인물들의 제스처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뮤직비디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런 장면은 환대와 연대의 이미지화⁴라고 볼 수 있다. 방탄은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에 이런 이미지를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무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05 〈명견만리Q100〉 67회, KBS, 2018.2.23.

06 강영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2005.

방탄은 본인들의 메시지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고 한다. 그들의 팬인 ‘아미’ 역시 자신이 방탄으로부터 받은 긍정의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이 세계 전체를 좀 더 긍정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방탄과 아미는 ‘기부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아미의 소통의 창구인 트위터에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으로 구성된 팬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해를 돕는 팬 계정이 존재하기도 한다.⁰⁸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의 공고함으로 타인에게 벽을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것이기에 분열되어 있는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TS는 사우디 공연이나 동남아 공연 등에서 현지 의 종규와 소수자 및 장애인을 배려하면서 음악적 내용뿐만 아니라 공연 문화에서도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홍석경은 BTS를 종교, 인종, 성적 정체성이 무엇이든 지구상의 누구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최초의 주체로 평가했다.⁰⁹ 이런 방탄의 행보와 그를 따라가는 팬들의 움직임은 방탄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환대와 연대를 탐구해야 할 이유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화양연화〉 연작과 〈Love Yourself〉 연작에 속한 뮤직비디오를 분석하면서 환대와 연대야말로 방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방탄 현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07 슬라보에 지젝, 정혁현 역, 『이웃들과 그 밖의 괴물들—윤리적 폭력을 위한 변명』, 『이웃』, 도서출판b, 2010.

08 이지행, 『BTS와 아이컬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159쪽.

09 홍석경, 『BTS 길 위에서』, 어크로스, 2020, 124~234쪽.

2. 타자의 얼굴과 제스처에 나타난 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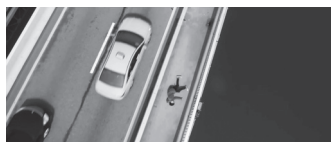
방시혁은 방탄의 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탄 스스로 가사를 써 나가길 원했다. 그 결과 누구도 흉내 내기 힘든 방탄 특유의 가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방탄이 자신들 삶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사회와의 접점을 찾게 됐고 무슨 얘기를 어떤 태도로 노래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레 터득해 나갔다.¹⁰ 이는 뮤직비디오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방탄의 멤버는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인데 이들은 방탄 세계관에서 각자의 실명인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을 이름으로 한 가상의 일곱 소년을 맡아 연기했다. 방탄 세계관이 시작되는 〈I NEED YOU〉 뮤직비디오는 현실에 상처받은 일곱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전정국의 경우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는데 그 일로 폭행을 당한다. 그 후 정신없이 길을 걷다가 차에 치일 위기에 빠진다. 김태형은 누나를 때리고 있는 아빠를 발견하고 칼로 찔러 살해한다. 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려 자살한다. 민윤기는 라이터로 방을 불태우면서 자살한다. 김남준은 혼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을 땅에 던지고 가버린 손님 때문에 속이 상한다. 박지민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얼굴까지 물에 담그면서 괴로워한다. 정호석은 기면증을 앓고 있다. 약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길을 걷다가 결국 쓰러진다. 김석진은 꽃잎을 들고 방에 있다가 방바닥에 꽃잎을 내려놓은 후에 운다. 태형이 아빠를 살해하는 장면과 석진이 우는 장면이 교차 편집된 것으로 볼 때 친구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퍼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은 폭력, 사고, 살인, 질병, 자살, 우울 등으로 고통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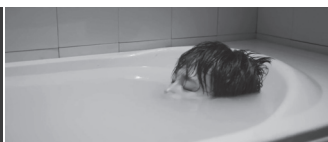
10 구자형, 『BTS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빛기둥, 2018, 80쪽.

러워한다.

문학 평론가 신형철은 이러한 고통이 10~20대들의 존재론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았다. 그는 아이돌 가수들이 멤버 각자를 캐릭터화해서 지속적으로 집합적 서사를 써나가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방탄이 무대 위 스타의 삶을 재료로 가공하여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서사가 아니라 동시대 청년들의 보편적 감정이입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투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했다. 그에 의하면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존재는 가족과 친구 집단 내부에서 유 무형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세대를 가장 중요한 수용자로 삼고 있는 주류 대중음악은 고리타분한 성 역할을 재생산할 뿐 그들의 상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BTS의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청년들의 상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¹¹ 신형철이 말한 청년들의 존재론적 취약성은 뮤직비디오에서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의 형태로 시각화된다.



〈장면 1〉〈I NEED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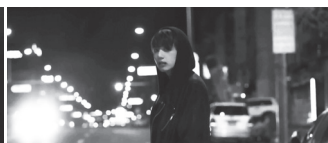
〈장면 2〉〈I NEED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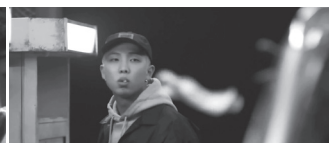
〈장면 3〉〈I NEED U〉



〈장면 4〉〈I NEED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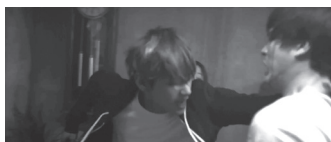


〈장면 5〉〈I NEED U〉



〈장면 6〉〈I NEED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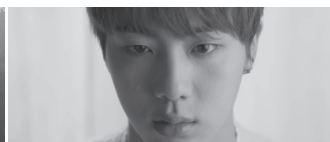
11 김영대,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 RHK, 2019, 195쪽.



〈장면 7〉〈I NEED U〉



〈장면 8〉〈RUN〉



〈장면 9〉〈I NEED U〉

〈장면 1〉은 호석이 길을 건다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버즈아이 뷰bird's-eye view로 촬영되었다. 이와 같은 기법은 극단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시청자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 피사체를 보잘것없게 보이도록 한다. 아무런 힘도 없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호석을 뮤직비디오 시청자들은 무기력한 피사체로 바라보게 된다. 〈장면 2〉는 지민이 욕조에 얼굴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 〈장면 3〉은 윤기가 방에 불을 지르고 그 안에 가만히 머무는 상황을 나타낸다. 〈장면 4〉는 길 가다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정국을 보여준다. 〈장면 5〉에서는 정국이 차에 치이기 직전의 얼굴을 한 가운데 배치했다. 〈장면 6〉에서 남준은 손님이 땅에 버린 돈을 멍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장면 7〉에서 태형은 누나를 때린 아빠를 칼로 찌른다. 〈장면 8〉에서 태형은 바다에 스스로 빠져 자살한다. 〈장면 9〉에서 석진은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다. 이처럼 뮤직비디오의 카메라는 각자의 고통에 쓰러지거나 죽어가는 청년들의 얼굴을 프레임 중간에 잡아 강조한다. 스크린의 중앙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가 배치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핵심적인 영역으로 여긴다.¹² 이런 장면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고통 속에 처한 청년들의 '얼굴'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얼굴은 일종의 계시이고 얼굴의 현현은 윤리적 호소이다. 얼굴은 상대방에게 명령하는데 그 힘은 상처받을 가능성, 무저항에서

12 루이스 자네티, 박만준·진기행 역, 『영화의 이해』, K-books, 2010, 52쪽.

온다. 궁핍 속에 있는 이웃은 우리에게 윤리적 명령에 직면하게 하고 그의 궁핍과 곤궁은 하나의 명령으로 다가온다. <화양연화> 뮤직비디오의 경우 그 이웃은 나와 친한 친구이다. 이민하는 <화양연화> pt.1의 타이틀곡인 'I Need You'의 뮤직비디오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소년들이 각자 마음속 상처를 갖고 있지만, 서로 보듬어 주고 위로해 주는 친구 사이라고 보았다.¹³ 이민하의 분석처럼 7명의 등장인물들은 서로 친한 친구 사이다. <장면 1>에서 <장면 9>는 각자의 상처를 지닌 7명의 친구들이 서로가 타자의 얼굴이 되어 서로에게 자신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을 때 인간의 보편적 결속과 평등의 차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았다. 타자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벗어나 그를 모실 때 비로소 그때 그와 동등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이런 타자와의 비대칭성, 불균등성이 인간들 사이의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기초이고, 이런 의미의 평등만이 약자를 착취하는 강자의 법을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¹⁴ 방탄의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에는 타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진정한 평등을 이룬 7명 친구 공동체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장면 10> <I NEED U>



<장면 11> <I NEED U>



<장면 12> <RUN>

¹³ 이민하, 앞의 글, 355쪽.

¹⁴ 강영안, 앞의 책, 35~36쪽.



〈장면 13〉〈RUN〉



〈장면 14〉〈RUN〉



〈장면 15〉〈RUN〉



〈장면 16〉〈Euphoria〉



〈장면 17〉〈Euphoria〉



〈장면 18〉〈Euphoria〉

〈I NEED YOU〉 뮤직비디오의 특징 중 하나는 각자 혼자서 괴로워하는 장면과 함께 즐겁게 노는 장면을 교차편집한다는 데 있다. 뮤직비디오가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사연에 집중하던 카메라는 갑자기 기차길을 신나게 걸어가는 7명의 친구 공동체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이들은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장면 10〉을 보면 먼저 올라탄 친구가 다음 친구를 위해 손을 내밀어 준다. 〈장면 11〉에선 먼저 기차 꼭대기에 앉은 친구가 다른 친구도 옆에 앉을 수 있게 손을 내민다.

〈RUN〉 뮤직비디오에도 환대의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뮤직비디오는 남준이 본인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 친구들이 있는 기차 칸 앞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장면 12〉에서 남준은 닫힌 문을 보고 노크를 한다. 남준이 문을 열면 〈장면 13〉처럼 이미 다 와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보인다. 이 중 지민이 마중 나와서 남준을 환영한다. 〈장면 14〉에서 보듯 호석이 남준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반기고 〈장면 15〉처럼 남준은 다른 친구들과도 반갑게 인사한다. 이처럼 〈장면 13〉부터 〈장면 15〉는 다른 6명의 친구들이 가장 늦게 들어온 남준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공포 아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레비나스는 전쟁과 폭력, 타민족 말살이 일어났던 이유가 타자를 거부하는 태도 때문이었다

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반유대주의는 타자 배제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타자 배제는 나의 존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데서 비롯된다. 나의 존재를 내세우면서 타자를 거부하고 말살하는 것은 레비나스가 보건대 근본 악이다. 그리고 이 근본 악은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며 타자에게 선을 행하는 일로 극복된다. 즉, 선은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¹⁵ 남준이 닫힌 문을 열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집단에 들어가고 그 집단 모두에게 환영받는 장면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환대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제공한다.

〈장면 16〉을 보면 혼자 누워 있는 태형을 중심으로 친구들이 둘러서 있다. 남준은 〈장면 17〉에서 보듯 환하게 미소 지으며 태형에게 손을 내민다. 그 결과 〈장면 18〉과 같이 태형은 일어설 수 있게 된다. 태형은 누나를 때린 아빠를 살해하고 바다에 뛰어든 인물로 가장 큰 고통에 처했었다. 이미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장면 16〉에서 〈장면 18〉을 보면서 위기에 빠진 태형을 친구들이 고통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에서 고통에 빠져 있는 친구를 찾아가 일으켜주는 장면은 여러 번 반복된다.

〈RUN〉에서 지민은 기면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호섭의 병실을 찾는다. 이때 지민의 손에는 베개가 들려있다. 호섭과 지민은 베개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는 곧이어 과거 다 함께 베개 싸움을 하며 놀았던 시절과 교차 편집된다. 즉, 베개 싸움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는 것과 같은 층위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친구들은 혼자 외롭게 육조 물속에서 괴로워하던 지민을 찾아가 함께 놀며 고통스러웠던 장소를 즐거운 놀이의 장소로 바꿔 버린다. 병원에 있

15 위의 책, 23쪽.

던 지민과 호섭을 친구들이 데리러 와서 함께 병원을 탈출하는 장면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친구^ㅌ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공간으로 가서 위로해 주고 함께해 주는 친구들의 움직임에 의미를 둔다. 이런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것은 함께 하는 즐거움이다.



〈장면 19〉〈I NEED U〉



〈장면 20〉〈R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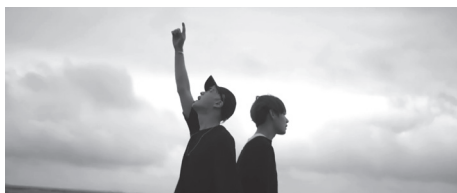
〈장면 21〉〈Euphoria〉

〈장면 19〉는 〈장면 11〉에 이어진 것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나란히 앉는 데 성공한 7명의 친구들을 보여준다. 〈장면 20〉은 지민이 혼자 욕조에 빠져가던 〈장면 2〉와 대조를 이룬다. 지민의 외롭던 공간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장면 21〉은 태형이 빠져던 바닷가에 다 같이 서 있는 장면으로 태형이 혼자 빠져가던 〈장면 8〉과 대조를 이룬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방탄의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미지는 총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고통받는 청춘들의 얼굴이고 둘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거나 서로를 환영하는 제스처이다. 셋째는 함께 즐거운 청춘들의 모습이다. 이런 장면들은 순차적으로 나타나거나 교차적으로 나타났다. 혹은 〈장면 20·21〉처럼 같은 배경에 대조적인 상황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3. 절대적 타자를 넘어선 연대의 시선

지금까지 〈I NEED U〉, 〈RUN〉, 〈Euphoria〉 등의 뮤직비디오에 주요하게 나타난 고통에 처한 타자의 얼굴과 그들을 향해 내민 따뜻한 손,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게 웃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타자의 명령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Save Me〉¹⁶ 뮤직비디오에 잘 나타난다.



〈장면 22〉



〈장면 23〉



〈장면 24〉



〈장면 25〉

〈Save Me〉 중에서

〈장면 22〉를 보면 진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올리고 있고, 〈장면 23~25〉를 보면 정국을 중심으로 멤버들이 하늘로 뻗은 손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안무를 하고 있다. 하늘로 뻗은 손을 중심으로 한 안무가 반복되면서 “save me save me”라는 가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 이를 통해 이 안무가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몸짓임을 알게 된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와

16 〈Save Me〉, 《화양연화 Young Forever》, 2016.5.2.

달라고 보내는 외침이 노래 가사와 안무를 통해 청각적,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Save Me〉의 가사 “난 숨 쉬고 싶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있어”를 들어보면 자신의 고통에 죽어가던 〈화양연화〉의 청년들이 떠오른다. “왜 이리 째째한 건지 니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잖아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날 나도 날 잡을 수 없어 내 심장 소릴 들어봐 제멋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에서 발화자는 “너”가 없는 곳은 위험하고 그곳에서 혼자 있는 “나”는 망가진다고 말하며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발화자의 심장은 간절히 빛나는 “너”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 이끌어주는 것이 방탄의 서사에 나타난 연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방탄은 고통에 빠진 청춘을 그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방탄이 그리고 있는 청춘들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것은 절대적 타자가 내리는 명령과 같다. 고통받는 타자는 이웃들에게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Save Me〉의 가사 “고마워 내가 나이게 해줘서 날게 해줘서 답답하던 날 깨워서”를 보면 위기에 빠졌던 청춘들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구원을 받은 해피엔딩이 떠오른다.

도와달라는 외침명과 그에 응답한 내용은 뮤직비디오의 이야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멤버들은 실제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존재, 명령에 응답하는 존재였고 다른 멤버들로 인해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를 도울 때 생기는 주체성과 일치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막내 정국에게 방탄 멤버들은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 준 존재였다. 정국은 “나의 내부에는 형들이 있다. 나는 형들이 키웠다”

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¹⁷ 그리고 이런 마음은 솔로곡 〈Begin〉¹⁸에 잘 나타난다. “아무것도 없던 열다섯의 나 세상은 참 컸어 너무 작은 나 이제 난 상상할 수도 없어 향기가 없던 텅 비어있던 나 형들이 있어 감정이 생겼어 나 내가 됐어” 정국은 텅 비어 있던 내가 형들^{멤버들}이 있어 감정이 생기고 자신이 됐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타인으로 인해 생긴 주체성을 직접적으로 발화한 부분이다. 이런 정국은 또 다른 멤버들에게 구원이 되기도 한다. “참을 수가 없어 울고 있는 너 대신 울고 싶어”, “죽을 것 같아 형이 슬프면 형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아파” 정국은 울고 있는 형들을 보면 울고 싶고 아픈 형을 보면 본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팠다. 고통에 처한 타자를 보고 돕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돕는 상태는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윤리와 일치한다.

〈Save〉의 도와달라는 외침은 방탄과 아미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뉴욕 시티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방탄의 공연 중 리더인 RM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저희를 이용하세요. 저희를 이용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¹⁹ RM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팬들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말하며 팬들로 인해 자신이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데뷔 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아미 덕분에 이겨냈던 방탄은 이제 본인들이 아미들이 힘들 때 도와줄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²⁰ 또한 방탄은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뿐 아니라 세상

17 홍석경, 앞의 책, 103쪽.

18 정국, 〈Begin〉, 〈Wings〉, 2016.10.10.

19 이지행, 앞의 책, 116~117쪽.

20 이런 마음은 팬들에게 보내는 노래인 〈둘! 셋!〉 가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So thanks) 이런 날 믿어줘서 이 눈물과 상처들을 감당해 줘서 (So thanks) 나의 빛이 돼줘서 화양연화의 그 꽃이 돼줘서” 팬들은 방탄에게 빛이고 꽃이었다.

에 소외된 사람들, 특히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돕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 변화는 <LOVE YOURSELF Answer> 연작
 중 하나인 <Answer : Love Myself> 뮤직비디오에 잘 나타나 있다.

<Answer : Love Myself> 뮤직비디오를 보면 <화양연화>에서 고통 속에 거
 했던 인물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등장한다. 이들은 이제 본인을 보지도, 주변
 친구들을 보지도 않는다.



<장면 26>²¹



<장면 27>



<장면 28>



<장면 29>

<장면 26>은 가운데 고인 물웅덩이 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둘씩 모
 이는 인물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화면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
 들로 전환된다. <장면 27>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한국 남학생을, <장면 28>은
 외국 학생을 보여준다. 이런 몽타주 기법²²을 통해 물웅덩이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에 고통 당하는 학생들은 <화양연화>의 정국 캐릭터를 떠올리게 한

²¹ <장면22>에서 <장면45>는 모두 <Answer : Love Myself> 뮤직비디오에 해당한다.

²² 몽타주(montage)는 프랑스어로 '조립하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장면을 적절하게 이어 붙여서 스토리가 있
 는 하나의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 정국은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 즉, 정국은 친구들에게 고통 당하는 얼굴을 한 절대적 타자였다. 그런데 이제 방탄의 시선은 바로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현재 어디선가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을 학생에게로 향한다.

슬라보예 지젝은 급진적으로 레비나스의 입장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타자들은 도처에 있기 때문이다. 레비나스가 말한 눈에 보이는 곤경에 처한 타자를 향한 사랑은 고통에 처한 여러 타자들 중 한 명만 이웃이 되어 타자들 간에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한다. 슬라보예가 주장하는 정의는 눈앞에 한 명의 타자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 남겨진 얼굴 없는 다수를 기억할 때 시작된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홀로 고통받고 있는 ‘제3자’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윤리적 의무는 이러한 제3자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Answer : Love Myself〉에서 방탄 멤버들이 시선을 웅덩이로 향하는 것은 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한 명의 타자의 얼굴을 넘어서서 얼굴 없는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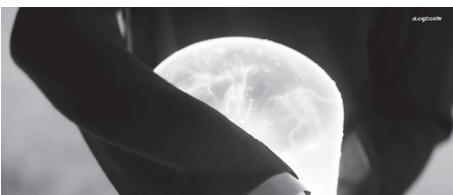


〈장면 31〉

23 타자의 얼굴을 넘어서 배경 속에 있는 얼굴 없는 제3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웃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89~294쪽)



〈장면 32〉



〈장면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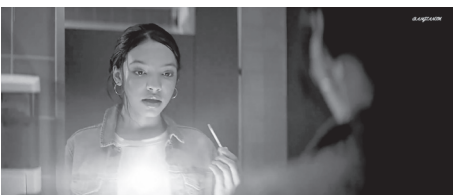
〈장면 34〉



〈장면 35〉



〈장면 36〉



〈장면 37〉



〈장면 38〉



〈장면 39〉



〈장면 40〉



〈장면 41〉

〈장면 30·31〉에서 남준은 물웅덩이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꺼낸다. 그다음 화면은 또다시 고통받는 여학생으로 전환된다. 〈장면 32〉를 보면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혼자 울고 있다. 〈장면 33〉에서 정국은 빛나는 물체에 남아 있는

물기를 닦아주는데 이는 울고 있는 여학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웅덩이에 담긴 물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수의 눈물을 상징하고 그 속에 감춰진 빛은 이들이 폭력을 당하면서 잃어버린 자신을 향한 사랑을 의미한다. <장면 34>에서 카메라는 혼자 학교 복도를 걸어가는 어린 여학생을 프레임 중간에 잡는다. <장면 27>에서 <장면 34>까지의 화면에 등장한 학생들을 보면 방탄의 시선이 국내에서 국외로, 남자에서 여자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이너 출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면 진정한 연대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집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연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²⁴ 국경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해서 타자를 향하는 방탄의 비디오는 집단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통 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는 것은 방탄의 음악이다. <장면 35·36>에는 슬픔에 빠진 학생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모습이 그려진다. 아마도 이들이 듣고 있는 노래는 방탄의 노래 <Answer : Love Myself>일 것이다. 그 가사를 보면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때 학생들의 가슴에는 빛이 떠오른다. <장면 37·38>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빛나는 물체에 손을 올린 방탄 멤버들을 비춘다. 그리고 이내 <장면 40·41>로 넘어가는데 이는 방탄의 손길 이 폭력에 슬피 울며 주저앉아 있는 어딘가 있을 제3자를 향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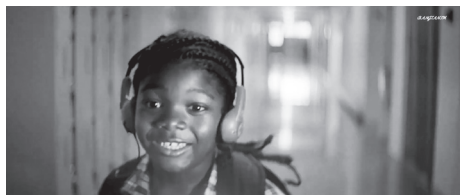
24 라이너 출, 최성환 역,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한울, 2008, 15쪽.



〈장면 42〉



〈장면 43〉



〈장면 44〉



〈장면 45〉

〈장면 42〉를 보면 누군가 일으켜 주는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난 학생을 보고 기뻐하는 방탄 멤버들의 얼굴이 잘 나타난다. 〈Answer : Love Myself〉의 가사인 “더는 죽고 싶지가 않은 걸 슬프던 me 아프던 me 더 아름다울 美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를 살펴보면 방탄의 음악이 학생들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면 43〉과 〈장면 44〉를 보면 눈물을 닦고 밝게 웃는 여학생들의 얼굴이 부각된다. 〈장면 45〉에서는 희망을 되찾은 학생들을 보며 기뻐하는 방탄의 모습이 프레임 중앙을 차지한다.

〈Answer : Love Myself〉에서 방탄 멤버들은 시선을 자신이나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 누군가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은 타자들은 다시 구원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다.

4. 나가며

많은 연구자들이 방탄의 특징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진정성은 삶과 메시지가 일치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뮤직비디오를 통해 타자에 대한 환대와 연대의 메시지를 던진 방탄은 실제로 실존하는 소수자, 약자들을 향해 움직였다. 방탄과 이들이 속한 기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11월부터 유니세프 측과 연을 맺고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유니세프의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를 2년간 약 26억 원 후원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UN 총회 연설을 펼쳤고 콘서트, 인터뷰, 토크쇼 등 다양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가치에 대해 알리며 전 세계 아동·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 결과 유니세프 ‘인스파이어 어워즈’에서 통합 캠페인과 이벤트 부문 최우수 캠페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4년 만에 재협약을 체결한 방탄은 2022년까지 유니세프의 아동 및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를 후원했다. 이를 위해 ‘LOVE MYSELF’ 상품 판매 수익금 및 ‘LOVE YOURSELF’ 앨범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했다. 이와 별도로 매년 50만 달러씩, 2년간 총 100만 달러²⁵⁾한화약11억2,950만 원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탄은 실제 삶에서도 제3자인 타자들을 향해 선행을 베풀으로써 환대와 연대의 메시지를 실천했다. 아이들을 역시 이 같은 선행에 동참하여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5 황혜진, 「코로나 기부 → 폭력근절 캠페인까지, 방탄소년단 역대 기부 그 이상 가치」, 『뉴스엔미디어』, 2021.3.5.

신자유주의가 발달하면서 연대 의식이 약화되었다. 이에 자신의 주체성을 최우선에 두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배척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때 방탄은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에 환대와 연대의 메시지를 던졌고 실제로도 캠페인을 통해 기부 활동을 펼치면서 이 시대의 소수자와 약자들에게 긍정적인 위로를 전했다. 이러한 방탄의 노래와 행보는 그들을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선 진정한 이 시대의 메신저가 되도록 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2005.
- 구자형, 『BTS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빗기둥, 2018.
- 김영대,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 RHK, 2019.
- 라이너 출, 최성환 역,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한울, 2008.
- 루이스 자네티, 박만준·진기행 역, 『영화의 이해』, K-books, 2010.
- 슬라보예 지젝, 정혁현 역, 『이웃들과 그 밖의 괴물들—윤리적 폭력을 위한 변명』, 『이웃』, 도서출판b, 2010.
- 이민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논문지』 13(3),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학회, 2019.
- 이지영, 『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 파레시아, 2018.
- 이지행, 『BTS와 아미컬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 장정윤, 「뮤직비디오 이미지 분석에 의한 방탄소년단의 남성성 특징 연구」, 『인문사회21』 13(1), 인문사회21, 2022.
- 정지은, 「케이팝(K-POP)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관한 연구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9(3), 한국문화산업학회, 2019.
- 홍석경, 『BTS 길 위에서』, 어크로스, 2020.

2. 기타 자료

- 황혜진, 「코로나 기부→폭력근절 캠페인까지, 방탄소년단 역대 기부 그 이상 가치」, 『뉴스엔미디어』, 2021.3.5.

Abstract

A Study on Hospitality and Solidarity of BTS Music Video

Kang Sung-ae*

This article analyzes the images of BTS' music videos produced in a storytelling way to reveal that 'hospitality and solidarity' are among the messages BTS is trying to deliver. This is also the work of interpreting the phenomenon in which BTS are called heroes or role models, not just idol singers.

The images that appear repeatedly in storytelling music videos are individual pain, gestures toward each other, and community. Signaling to come in, extending a hand to lift a person who is lying down, and welcoming a person who has entered with open arms are all gestures that show hospitality and solidarity. Individuals buried in pain are healed and feel joy in the community due to these gestures.

At first, the target they had to save was a friend they knew well and now in front of them. This is the absolute Other that Levinas said. However, as time goes by, their attention turns not to the other in front of them, but to the third person who is invisible but suffering somewhere. BTS sings for someone who is suffering from domestic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BTS has already surpassed popular idols. They gave a speech at the UN twice, met the US president, and responded to various interviews revealing their convictions. They not only express the essential message of this era through dance, song, and video, which are what they do best and like, but also put it into practice in real life. They have become a true messenger in this era.

Keywords BTS, Music Video, hospitality, solidarity, gesture, message

이 논문은 2023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6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Namseoul University.